

“비수기 땀 젊은 작가들에 무료 대관”



지난 15일 광주예술의 거리 무돌교회 옆에 문을 연 향담갤러리.

예술의 거리에 ‘향담 갤러리’ 문 연 채색 화가 이성임씨

채색화가 향담(香潭) 이성임(69) 작가는 50년 가까이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채색화와 민화를 가르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꿈꾸던 것 중의 하나가 ‘갤러리 운영’이었다. 집이 있던 담양에서 갤러리를 운영해 볼까 고민하기도 했던 이 작가가 큰 마음 먹고 문화 중심지 예술의 거리에 ‘향담 갤러리’를 오픈했다. 예술의 거리에 갤러리는 많지만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는 꽤 넓은 편이다.

정식 개관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찾아간 ‘향담 갤러리’는 예술의 거리 중심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무돌교회 옆, 옛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갤러리의 규모는 동구청이 운영하는 무등갤러리 보다는 작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으로는 꽤 넓은 편이다.

40평 규모의 건물 1층은 갤러리로 운영한다. 앞으로 대관을 받아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개관전 후 2층은 임대할 줄 예정이며, 3층은 개인 작업실과 함께 민화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3층 공간 일부는 온돌을 깔아 편안하게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쉽사리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예술의 거리를 걷다 건물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구입한 후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갤러리를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운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임대료 부담이 없어 가능한 일이지 운영비 등을 생각하면

3층 건물 구입 1층에 갤러리 꾸며

2층 ‘문화체험학습장’ 등 계획

개관 기념 ‘이성임 채색화 민화’전

시작하기가 어렵죠. 현재 2층을 임대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크게 연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힘들지는 몰라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민화 그리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요.”

이 작가는 무엇보다 ‘젊은 작가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했다.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열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대관료 등을 생각하면 쉽게 전시를 열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비수기에는 무료로 공간을 대여해줄 생각이다.

홍익대 공예과를 졸업하고 서울과 울산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 작가는 12년 전 광주가 고향인 남편을 따라 광주에 내려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도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맡기도 한 이 작가는 광주에서 민화 수업을 꾸준히 열고 있다. 현재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채색화와 민화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민화를 강의한다.

“처음 광주에 왔을 때 산수화와 문인화 등은 많



았는데 채색화는 별로 없었어요. 민화는 더더욱 없었고요. 최근에는 민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화는 다른 회화 장르에 비해 성과가 빨리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밑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민화는 생활 미술입니다. 커튼, 보석상자, 부채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품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작가는 매주 토요일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아여쁘다 공동’에서도 간단한 민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설 예정이다.

개관 기념전으로 마련한 ‘이성임 전’에서는 꽃, 나비, 비둘기 등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작업해온 이 작가의 대표작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한지에 분채 등으로 작업한 수국 등 대형작품도 눈에 띄며 최근 작업하기 시작한 추상 채색 등도 내걸었다. 2층에는 이 작가의 민화 작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2-266-1215.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담빛예술창고 청년작가 전시 작품전

8월 30일까지

선정 작가 3명

작품 전시

▶서법현 작
‘돈 넣고 돈 먹기’



담양의 오래된 창고에 새 옷을 입힌 담빛예술창고(총괄 기획감독 장현우)는 전시 뿐 아니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탁 트인 넓은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기획전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작가들을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소개해온 담빛예술창고가 이번에는 제1회 담빛예술창고 청년작가 전시 공모전 진행하며 ‘젊은 작가’들에 눈을 돌렸다.

오는 8월 30일까지 ‘The art of the times’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3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대 서양화 전공인 서법현 작가는 ‘돈’을 소재로 다양한 설치 미술을 선보인다. 어린 시절 아

버지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던 꼬깃꼬깃한 찌지 돈을 일렬로 배열한 ‘돈 넣고 돈 먹기’ 등을 비롯해 자화상 시리즈도 함께 선보인다.

조선대와 동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김하슬 작가는 왜곡된 인물들의 모습과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오늘 일기’ 등을 전시한다.

원광대를 거쳐 경기대 대학원에서 수학한 홍남기 작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영상으로 풀어낸 ‘향해’ 등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창작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담빛예술창고가 진행하는 기획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연중무휴.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61-383-82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강일호 초대전

7월 한달간



▶‘판도라의 상자’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이 질주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하다. 눈부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을 달리는 푸른 유니콘은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태림) CNUH갤러리가 7월 한달간 한국화가 강일호 작가 초대전을 갖는다. ‘노스텔지어전(展)’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억에 대한 향수와 이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강 작가 특유의 동화적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장지에 과수와 분채를 활용, 채색을 하는 그의 작품은 한국화 보다는 서양화 느낌이 많이 난다.

유니콘이 등장하는 ‘판도라 상자’ 시리즈는 거대한 설산을 배경으로 푸른 초원, 꽃들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이상향의 평화로움을 이야기한

다. 또 바람에 흔들려 물결치는 듯한 푸른 들판과 푸른 하늘, 그리고 솟대 위에 앉은 파랑새는 제목 ‘노스텔지어’처럼 아련하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300여회의 단체전과 10여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광주미술대전 대상, 허백련 미술상 특별상, 금호영 아티스트 작가로 선정됐다.

또 한국화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남대에 출강하며 소리와 그림전·형상화·에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대병원은 한지와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매일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회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광조 청소년 정경아카데미’ 28~30일 화순 금호리조트

청소년의 미래와 리더십, 조광조의 개혁사상에 대한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청소년아카데미가 열린다.

조광조정경대추진위원회와 (사)지역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7년 조광조 청소년 정경아카데미’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화순 금호리조트와 화

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암 조광조의 개혁이상을 계승하고 더불어 조광조 유적·적벽·주자묘를 연계한 화순 문화관광 체험에 목적이 있다. 참가대상은 고교 과정의 전국 청소년 100명(화순 관내 고교생 30%)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청년과 나라의 미래(구충곤 화순군수) ▲청소년을 위한 자기혁명(박경철 시골의사) ▲조광조의 삶과 개혁사상 그리고 화순(안병걸 안동대 교수) ▲21세기를 이끄는 리더십(김광진 전 국회의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신청서 3부를 작성해 이메일(dreamnjob@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225-575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원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관공제 옥상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런트 이영 후

한국방수공사(주) 24시간 24시간 24시간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물로 가열해도 물이 시뮬을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디자인의 플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에서 무료보여주기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QR 코드